

보도해명자료 (‘18. 3. 5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광물공사 통폐합 가닥, 부실이전 우려(‘18. 3. 5.,
한겨레, 경향, 연합뉴스 등)

1. 기사내용

- ☐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합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5일 정부에 권고할 예정
 - 해외자산은 캄코에 매각을 의뢰하고 잔존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나 기존 공사채를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제시
- ☐ 책임자 규명, 부실방지 대책이 없는 반쪽자리 통합기관이 불가피하며, 부실자산 매각 등이 더딜시 통합기관 미래도 불투명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혁신TF, 산업부의 입장

- ☐ 광물공사 처리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, 3.5일 14:00시에 시작될 TF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
- ☐ TF는 원인규명·재발방지 분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실실태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윤정원 팀장 (044-203-5150)